

15호

Kstat Report

2020년 10월 29일

'사회·가족·개인'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

사회·가족·개인 관련 조사 주요 내용

- 사회전체 행복보다 가족과 개인 행복 중시해
- 20년 후를 생각해도 가족과 개인 행복 중시 의견
- 가족과 있을 때도 편안하지만,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하다
- 호감 느끼는 사람 유형, 연령별로 달라
- 가족간의 반인륜적인 행동에 가장 분노
- 가족 행복 다룬 드라마.영화 감동 받는다
- 60대이상, '가족사랑 대단하다' 종종 듣는다

사회-개인 가치지향별 유형화 결과

- 사회.가족지향형 38% vs 개인.가족지향형 39%
- 개인.가족지향형, 남성은 2040 세대 / 여성은 2050 세대 우세
- 유의사항 : 한국적 특징인 '가족주의' 특성 중시해야

• • •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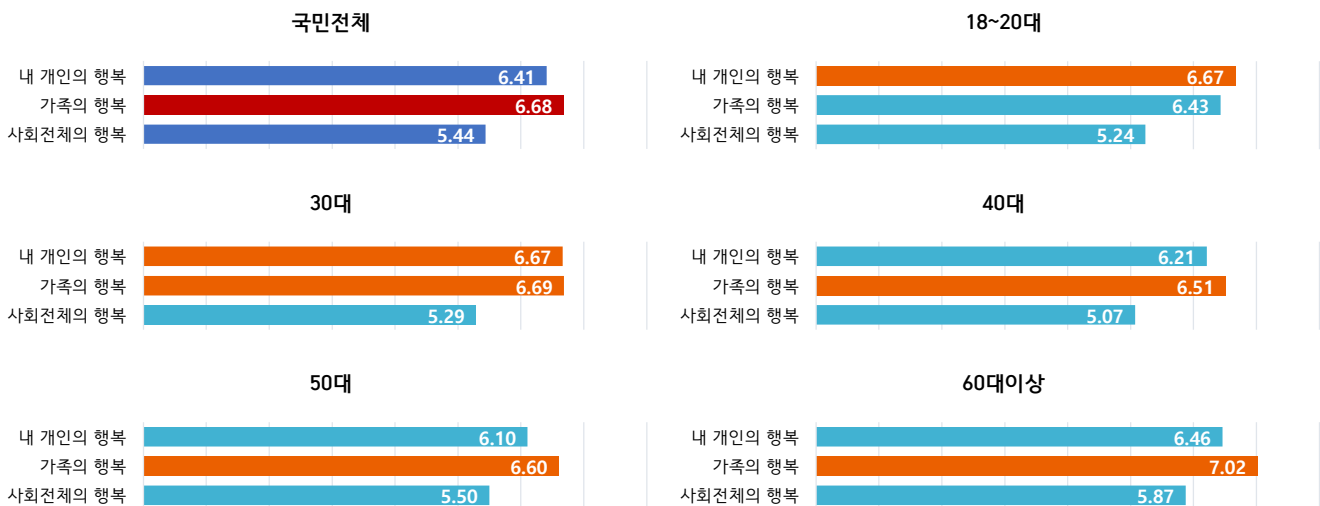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본 리포트에서 n 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 사회·가족·개인 관련 조사 주요 내용

※ 사회전체 행복보다 가족과 개인 행복 중시해

- ▶ 국민들에게 평소 살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가족의 행복’이 6.6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 개인의 행복’(6.41점), ‘사회전체의 행복’(5.44점) 순으로 조사됨
 -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점수를 높게 응답한 결과임
 - 구체적으로 0점은 ‘약하다’, 5점은 ‘보통이다’ 10점은 ‘강하다’는 척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
- ▶ ‘가족의 행복’은 3060 세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60대이상 연령층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60대이상 연령층의 ‘가족의 행복’ 점수는 7.02점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
- ▶ ‘내 개인의 행복’은 18~20대와 30대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함
 - 18~20대는 ‘내 개인의 행복’이 6.67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역시 6.67점을 기록해 ‘가족의 행복’(6.69점)에 근소하게 뒤진 2위를 차지함
- ▶ 한편, ‘사회전체의 행복’이라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냄
 -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60대 이상이 5.87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5.07점으로 가장 낮았음

“나는 평소 살면서 이것을 소중히 생각한다” 동의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0.10.11.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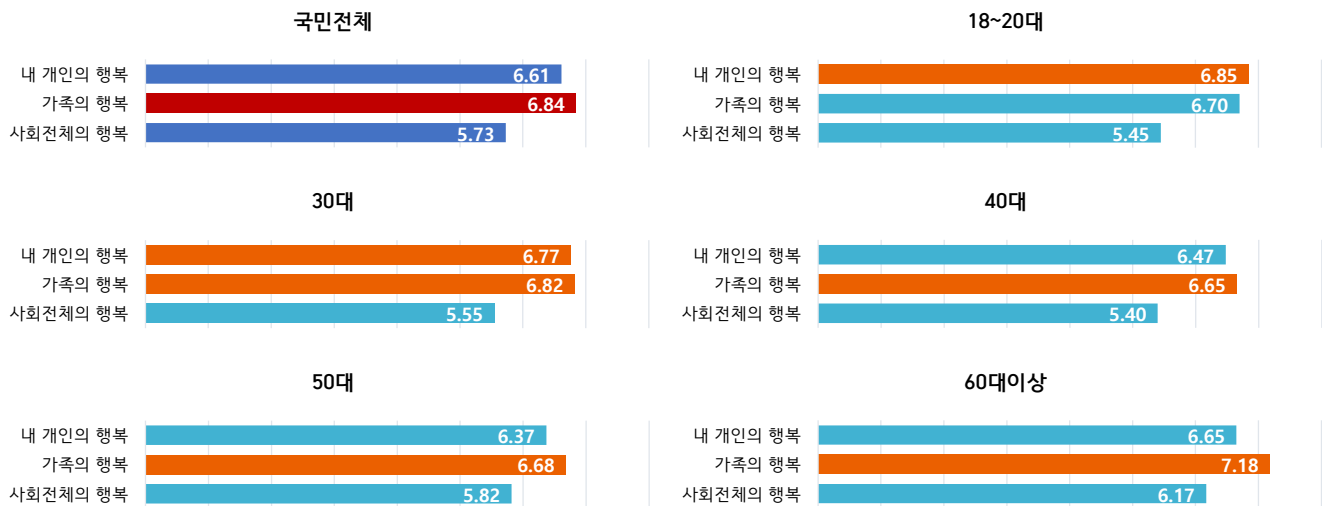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평소 ‘가족의 행복’을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2030 세대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들 역시 ‘가족의 행복’도 동시에 중요시 여기고 있음
- ☑ ‘사회전체의 행복’에 대한 동의도가 낮은 것은 ‘국가 발전하면 개인도 발전한다’는 과거 국가중심 성장논리가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국가중심 성장논리에 익숙한 60대이상 연령층에서도 3가지 행복 중 사회전체의 행복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 이러한 흐름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년 후를 생각해도 가족과 개인 행복 중시 의견

- ▶ 국민들은 현재는 물론 20년 후에도 가족과 개인의 행복을 중시 여길 것이라고 응답함
- ▶ 3가지 행복 모두 현재 시점보다 평점이 오른 가운데 여전히 ‘가족의 행복’이 6.84점으로 1위를 차지함
 - 다음은 ‘내 개인의 행복’이 6.61점, ‘사회전체의 행복’이 5.73점 순으로 조사됨
- ▶ 2030 세대는 ‘내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고, 4060 세대는 ‘가족의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도 앞서 조사결과와 동일함
- ▶ ‘사회전체의 행복’은 마찬가지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20년 후를 생각해도 나는 이것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동의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0.10.11.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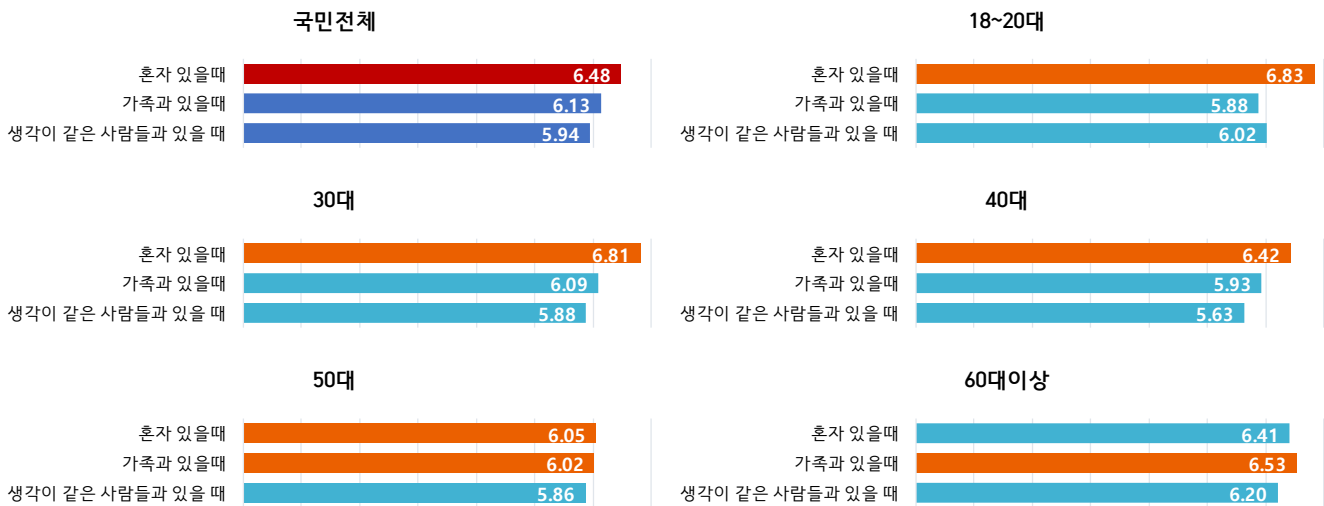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가족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일종의 공동체인데, 우리 국민은 이러한 ‘가족의 행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가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데, 동서양 가족은 모두 근대화를 거치면서 핵가족으로 변화되었지만 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임
- ☑ 서구의 핵가족은 가부장주의에서 탈피한 개인주의 확장의 공간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 서구의 가족은 자녀가 있는 부부(전통적 가족)만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 동성 가족 등으로까지 그 개념이 확장되어 있음
- ☑ 이에 비해 동양의 가족은 강력한 유교 관념에 의해 여전히 가부장적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임(예란 테르보른, 「다른 세계를 요구한다」)
- ☑ 한국의 가족 역시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개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그 자유와 책임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에 있다는 분석임(장경섭, 「내일의 종언?」)
 - : 한국의 가족주의는 가족이란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규칙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선택이라 할 수 있는 학업과 진로, 연애, 결혼, 출산 등에 가족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임
 - : 또한 가족주의는 혈연주의로 연결되면서 혈연적 공통점이 없는 타자(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정상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한부모 가족, 동성 가족)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핵심 내용임

※ 가족과 있을 때도 편안하지만,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하다

- ▶ 국민들은 가족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편안함을 느낄 때는 ‘혼자 있을 때’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혼자 있을 때’가 6.4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과 있을 때’(6.13점),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있을 때’(5.94점) 순으로 조사됨
- ▶ 60대이상은 ‘가족과 있을 때’가 편안하다는 응답이 1위이고, 50대에서도 ‘가족과 있을 때’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함
 - 60대이상 연령층도 ‘혼자 있을 때’가 편안하다는 응답과의 차이가 크지 않음
- ▶ 2040 세대는 ‘혼자 있을 때’ 편안하다는 점수가 다른 경우 점수와 차이가 큰 편임
 - 특히 18~20대는 ‘가족과 있을 때’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나는 이 시간이 편안하다” 동의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0.10.11.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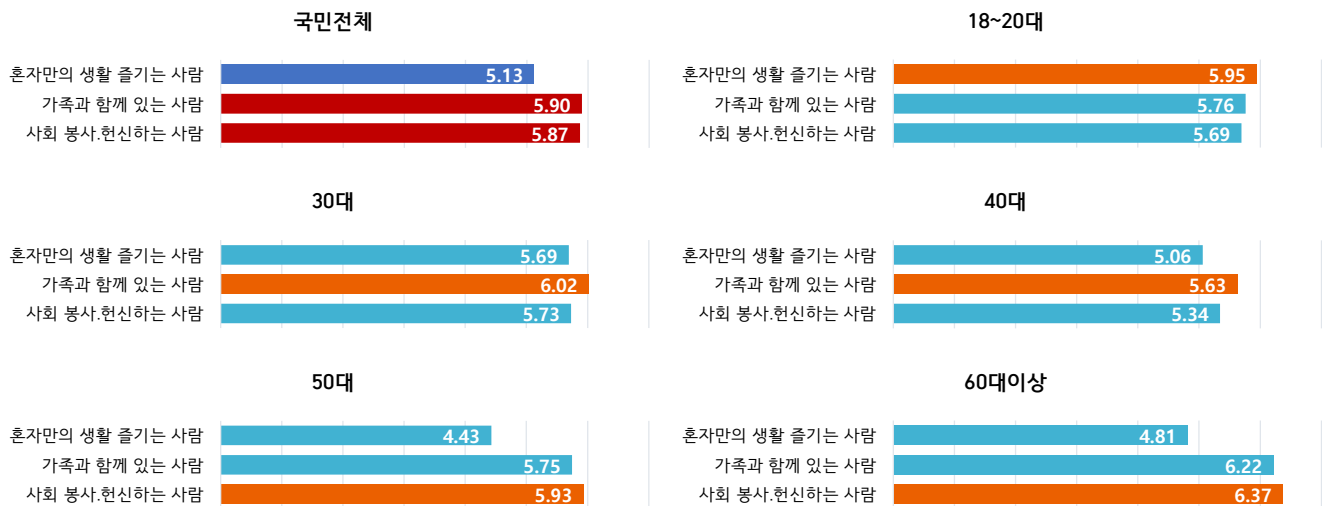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가족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가족과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모순된 응답임
 - ☑ 이는 현재 한국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가족주의’의 어두운 측면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임
 - ☑ 즉, 우리사회의 ‘가족주의’는 긍정적으로 볼 때 ‘믿을 건 가족뿐이다’라는 말로 설명되듯 치열한 경쟁에서 시달린 삶의 휴식처이자, 경쟁에서 실패할 경우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이기에 소중한 존재임
 - ☑ 하지만 학업, 진로, 결혼, 출산, 취미, 여가활동 등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를 가족이 선택하고 결정함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
- ∴ 이러한 스트레스는 가족의 선택을 강제당하는 구성원(주로 2030 세대)은 물론 그 선택을 강제하는 구성원(4060 세대) 모두에 해당되기에 정작 가족보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임

※ 호감 느끼는 사람 유형, 연령별로 달라

- ▶ “나는 이런 사람에게 호감이 간다”는 질문 이후 개인, 가족, 사회에 대응하는 3가지 사람 유형에 대한 동의도를 조사한 결과 ‘가족과 함께 있는 사람’이 5.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5.87점),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5.13점) 순으로 조사됨
- ▶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응답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 먼저 18~20대는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1위를 차지함
- ▶ 30대와 40대는 ‘가족과 함께 있는 사람’이 1위로 나타났고, 50대와 60대는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1위를 기록함
- ▶ 특히 5060 세대의 경우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에 대한 동의도가 5점에 미치지 못할 만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앞서 척도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0점은 ‘약하다’, 5점은 ‘보통이다’ 10점은 ‘강하다’는 척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함
 - 즉, 5점에 미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나는 이런 사람에게 호감이 간다” 동의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0.10.11.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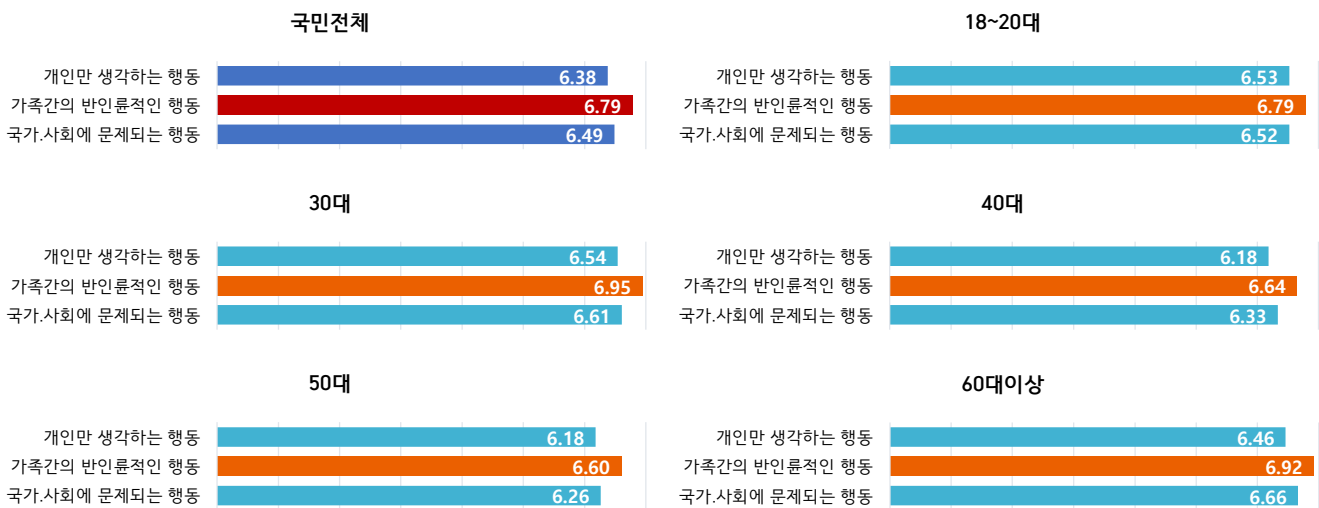
Kstat Point

- ☑ 한국의 ‘가족주의’는 개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그 자유와 책임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에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음
- ☑ 호감을 갖는 사람 유형에 관한 결과에서 이러한 ‘가족주의’에 대한 세대간 갈등 지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임
- ☑ 5060 세대는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한 가족의 선택과 책임을 중시한 데 비해 18~20대는 개인 자체의 선택과 책임을 중시하면서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음
 - : 5060 세대의 경우 개인주의 흐름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집단주의 또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18~20대는 개인주의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 ☑ 3040 세대는 그 중간에서 온전히 가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가부장적인 가치와 개인주의적 가치 사이에서 부유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가족간의 반인륜적인 행동에 가장 분노

- ▶ “나는 이런 뉴스를 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질문 이후 개인, 가족, 사회에 대응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한 동의도를 조사한 결과 ‘가족간의 반 인륜적인 행동’이 6.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국가와 사회에 문제되는 행동’(6.49점), ‘개인만 생각하는 행동’(6.38점) 순으로 조사됨
- ▶ 이번 항목에 대한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가족간의 반 인륜적인 행동’이 1위를 차지함
 - 18~20대 6.79점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기록함
- ▶ 또한 ‘개인만 생각하는 행동’이나 ‘국가와 사회에 문제되는 행동’에 대한 응답 역시 전 연령대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나는 이런 뉴스를 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 동의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0.10.11.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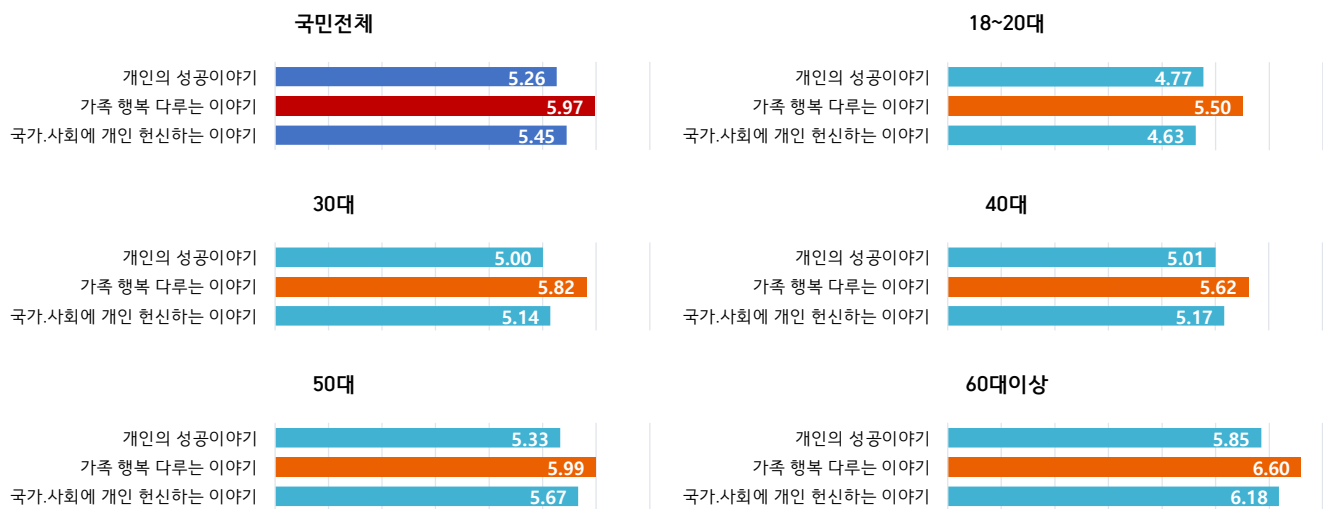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분노하는 것에 대해 똑같이 ‘가족’을 들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양상임
- ☑ 즉,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가운데, 어떤 세대는 사회 지향성이 존재하고 어떤 세대는 개인주의 지향성이 존재하는 정도의 차이임
- ☑ 이러한 지향성 차이에 대한 인구특성 분석은 후반부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가족 행복 다룬 드라마.영화 감동 받는다

- ▶ 국민들이 감동을 받는 드라마.영화 이야기로는 ‘가족의 행복을 다루는 이야기’가 5.97점으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야기’(5.45점)와 ‘개인의 성공 이야기’(5.26점) 순으로 조사됨
-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의 행복을 다루는 이야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60대이상 연령층에서 6.60점으로 가장 높았음
- ▶ 18~20대의 경우 ‘개인의 성공 이야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이 특이함
 - ‘보통’(5점)보다 낮은 4.77점을 기록해 감동을 다소 안 받는다고 응답함
 - 18~20대는 또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보통’보다 낮은 4.63점을 기록해 부정적임

“나는 이런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자주 감동을 받는다” 동의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0.10.11.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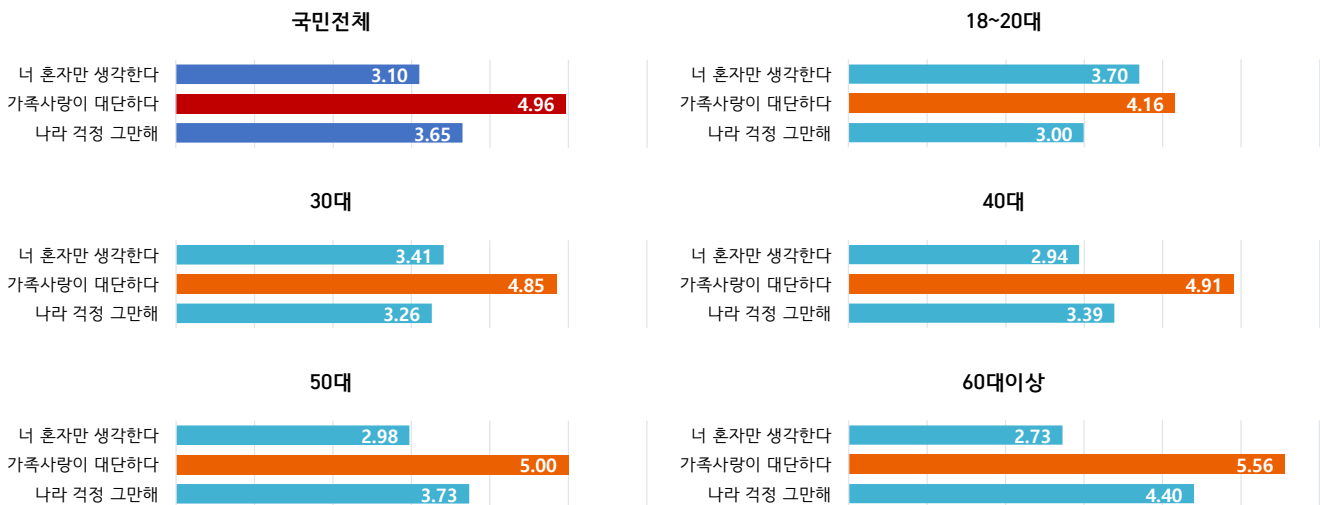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 관련 반 인륜적 범죄에 분노하면서, 가족의 행복을 다루는 드라마.영화에 자주 감동을 받고 있음
- ☑ 다만, 가족의 행복을 다루는 드라마.영화에 자주 감동을 받는 정도는 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60대가 가장 높고 다음은 50대, 30대, 40대, 18~20대 순으로 감동을 받는다고 응답함
- ☑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한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 행태에 대한 찬성 강도와 비슷한 것으로 보임

※ 60대이상, ‘가족사랑 대단하다’ 종종 듣는다

- ▶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류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는 질문에 ‘가족사랑이 대단하다’는 응답이 4.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은 ‘나라 걱정 그만해’(3.65점), ‘너 혼자만 생각한다’(3.10점) 순으로 조사됨
- ▶ 모든 연령에서 ‘가족사랑이 대단하다’가 1위를 차지해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강도 면에서는 차이가 있음
 - 60대이상 연령층에서만 ‘보통’(5점)을 넘는 5.56점을 기록했고, 50대는 ‘보통’에 해당하는 5.00점을 기록함
 - 3040 세대에서는 ‘보통’(5점)에 미치지 못하는 4점대 후반을 기록했으며, 18~20대는 4.16점으로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표명함
- ▶ 한편, ‘나라 걱정 그만해’라는 말은 60대이상 연령층(4.4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너 혼자만 생각한다’는 말은 18~20대(3.70점)에서 높게 나타나 양 세대가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됨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류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동의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0.10.11.조사,단위:점)



Kstat Point

- ☑ 사회·가족·개인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18~20대와 60대이상 연령층의 인식 차이로, 두 세대는 개인 vs 사회라는 가치를 축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음
- ☑ 이렇게 볼 때 정치사회적 태도 면에서는 두 세대가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임
 - : 예를 들어 케이스탯 2020년 10월 정기지표에서 18~20대와 60대는 비슷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음
 -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양 세대는 모두 ‘잘못된 방향’이라고 응답하고, 정부 신뢰도도 비슷한 수치로 부정적이고, 정부정책 만족도 역시 부정적 수치가 비슷함
- ※ 정기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2020년 10월 정기지표] 참고
- ☑ 정치사회적 태도에서의 두 세대간 동일성에만 주목할 경우 성급한 동질화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함
 - :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 18~20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을 두고 현 정부에 대한 60대이상의 반대와 동일시하는 것은 선부름
 - : 18~20대는 적폐청산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성’에 실망한 측면이 강하고, 60대이상은 진보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자체를 반대하는 측면이 강해, 그 내용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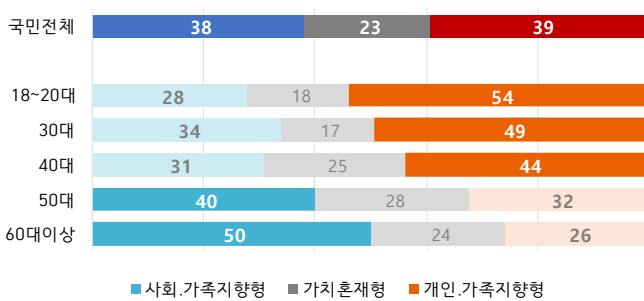
▣ 사회-개인 가치지향형 유형화 결과

※ 사회.가족지향형 38% vs 개인.가족지향형 39%

- ▶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요인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사회·가족·개인 관련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됨
 - 분석 방법은 먼저 개인, 가족, 사회라는 3개 차원의 각 7개 항목에 대한 응답 값(총 21개 항목)을 이용해 요인분석기법으로 3개의 요인을 추출한 다음,
 - 각 요인에 대한 요인적재값으로 계층적 군집분석 기법을 실시해 3개 그룹으로 분류함
- ▶ ‘사회.가족지향형’ 38% vs ‘개인.가족지향형’ 39%, ‘가치혼재형’ 23% 등 3개 유형임
 - 사회공동체를 지향하거나 개인자유를 지향하거나 모두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통분모가 존재함
 - 이에 명칭을 ‘사회.가족지향형’과 ‘개인.가족지향형’으로 명명함
 - 가치혼재형은 사회공동체 또는 개인자유,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혼재되어 있는 계층임
- ▶ ‘사회.가족지향형’이 강한 계층은 △5060 세대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보수층과 진보층 △인천.경기, 호남 △자영업, 화이트칼라, 은퇴.무직자 계층 등임
 - 보수층과 진보층이 공통적으로 ‘사회.가족지향형’에 속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가부장적 태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 ‘개인.가족지향형’이 강한 계층은 △2040 세대 △600만원 미만(중간소득 및 저소득계층) △중도층 △충청, TK, PK △블루칼라, 주부, 학생 등임
 - 서울은 ‘사회.가족지향형’ 38%, ‘개인.가족지향형’ 39%로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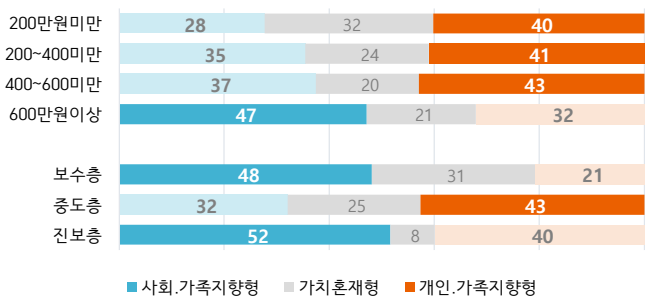
가치지향형 유형화 결과 : 국민전체, 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10.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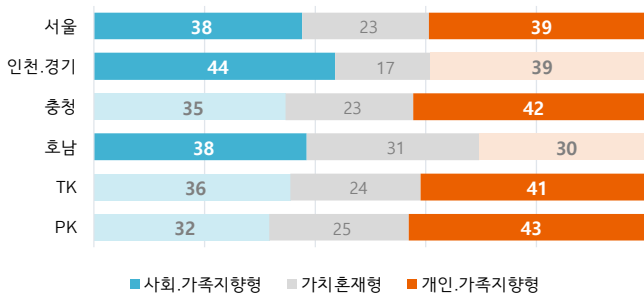
가치지향형 유형화 결과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0.10.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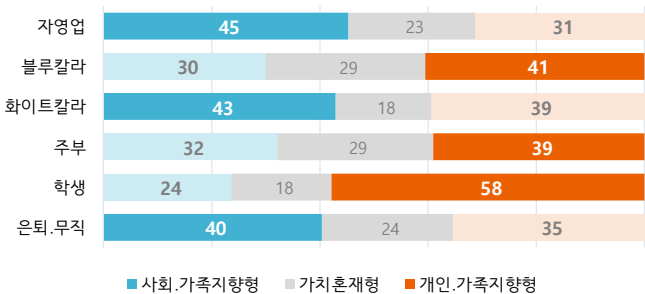
가치지향형 유형화 결과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0.10.11조사,단위:%)



가치지향형 유형화 결과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0.10.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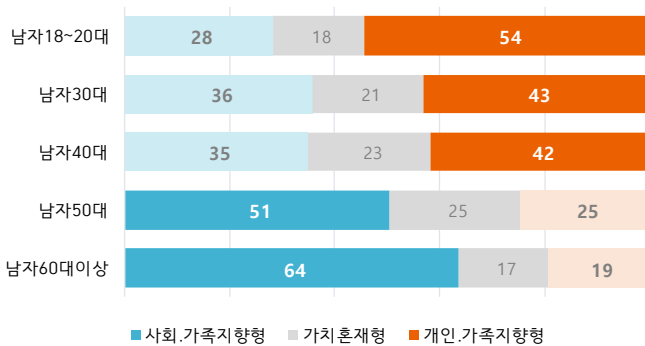


※ 개인.가족지향형, 남성은 2040 세대 / 여성은 2050 세대 우세

-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 5060 세대는 ‘사회.가족지향형’이 우세하고 2040 세대는 ‘개인.가족지향형’이 우세함
- ▶ 여성의 경우 60대이상에서만 ‘사회.가족지향형’이 우세하고, 2050 세대는 모두 ‘개인.가족지향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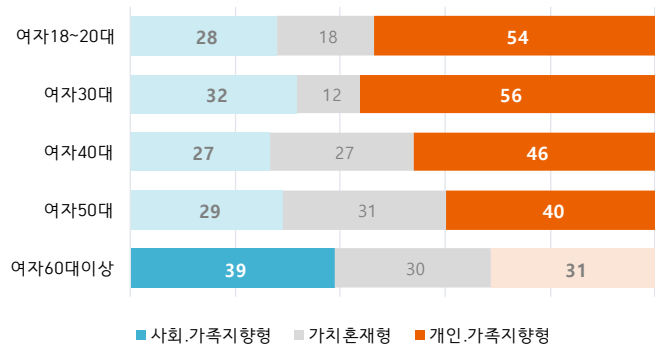
가치지향별 유형화 결과 : 남자 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10.11조사,단위%)



가치지향별 유형화 결과 : 여자 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10.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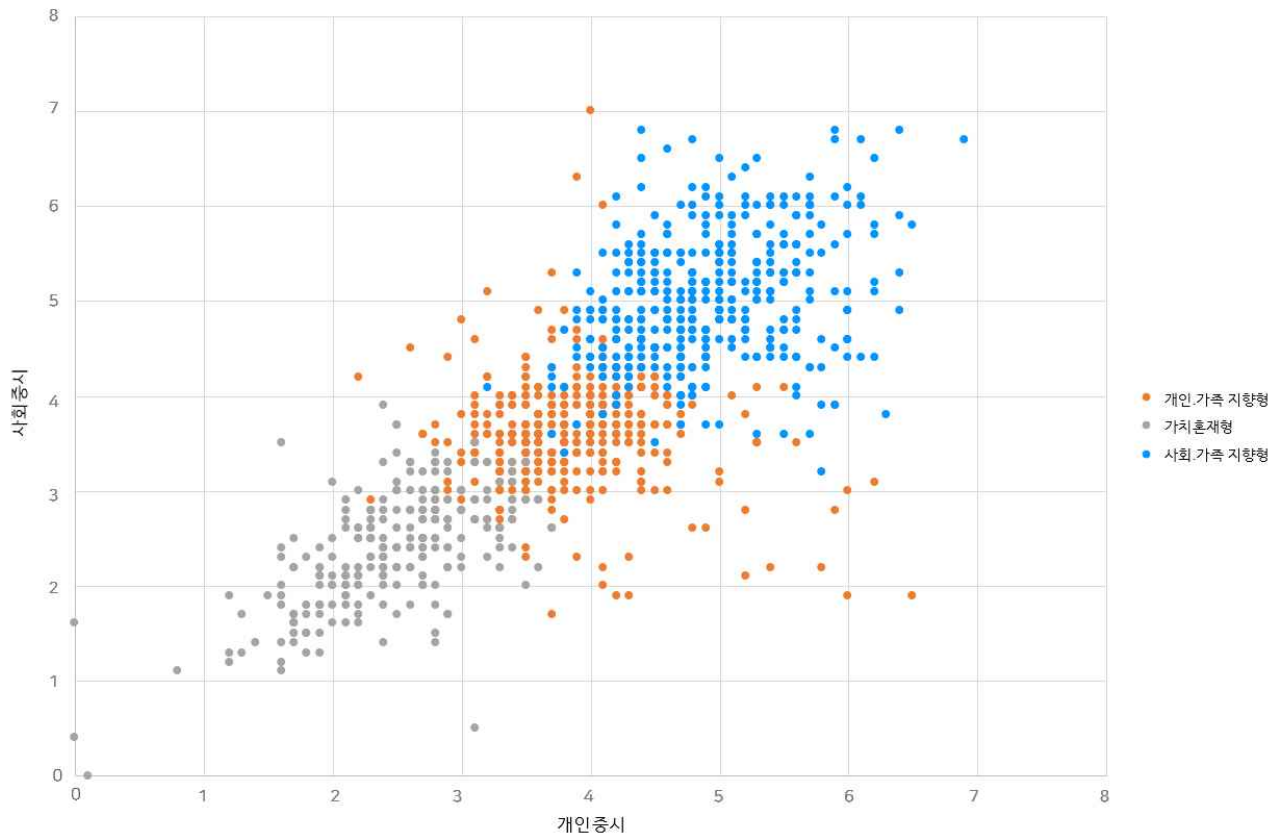
Kstat Point

- ☑ 한국사회에서 ‘가족주의’는 매우 강력한 흐름으로 모든 계층에서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함
- ☑ 계층적 균집분석 결과 가족주의를 공유하면서도 ‘사회공동체’를 지향하는지, ‘개인주의’를 지향하는지는 비교적 뚜렷이 구별 가능함
 - : 또한 그 지향이 불분명하거나 혼재되어 있는 ‘가치혼재형’도 별도로 추출됨
- ☑ 계층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별 분포는 앞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와 궤를 같이하면서 5060 세대는 ‘사회.가족지향형’이 우세하고, 2040 세대는 ‘개인.가족지향형’이 우세함
- ☑ 이례적인 점은 주관적 이념성향별인데,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공통적으로 ‘사회.가족지향형’이 우세하다는 점임
 - : 엄밀하게 볼 때 보수층은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기에 ‘사회.가족지향형’이 우세한 것이 맞지만, 진보층은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기에 ‘개인.가족지향형’이 우세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게 나타남
 - : 이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이념성향을 판단할 때 나타나는 한계이자 문제로, 아직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 정립 및 국민적 공유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른 결과임
 - : 즉,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 또는 가부장적 태도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임
 - : 민주당 내의 이른바 ‘운동권 문화’ 역시 이러한 집단주의의 한 형태라는 지적임
- ☑ 지역별 특성에서도 이색적인 점이 있는데, 보수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TK와 PK에서 ‘개인.가족지향형’이 우세하게 나타난 점임
 - : 이 역시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 혼란 때문으로, 정치적 태도와 달리 실제로는 TK와 PK에 개인주의 성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즉, 정치적 태도 때문에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을 당선시킬 정도로(20대 총선 당시) 개인주의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임
- ☑ 향후 주관적 이념성향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할 때 좀 더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유의사항 : 한국적 특징인 ‘가족주의’ 특성 중시해야**

- ▶ 아래 응답자 산포도는 이번 조사 응답자 모두의 개별적인 응답 결과로, 공통가치인 가족을 제외하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응답 결과만으로 좌표화 한 그림임
- ▶ 우리 국민의 사회·가족·개인 관련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 가능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것은 한국적 특징인 ‘가족주의’이고, 이러한 특성에 유념하면서 유형화 결과를 바라봐야 함
- ▶ 즉, 한국의 ‘가족주의’는 개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그 자유와 책임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에 있고, 이러한 경향은 매우 뚜렷함
- ▶ 이에 따라 ‘사회·가족지향형’ 국민들 역시 개인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기에 개인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음
 - 파란색 사회·가족지향형 국민들은 사회도 중시하고, 개인도 중시함
- ▶ ‘개인·가족지향형’ 국민들은 가부장적 태도를 고수하는 ‘사회·가족지향형’ 국민들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회공동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또한 이를 개인주의라고 강변하기보다 ‘가부장적 문화에 반대한다’는 류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 이에 주황색 개인·가족지향형 국민들은 사회·가족지향형 국민들에 비해 중간에 위치함
- ▶ 한편, 가치혼재형은 사회, 가족 모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면서 좌하단에 위치하고 있음

사회-개인 가치지향에 따른 군집화 산포도



조 사 개 요

조 사 기 간

2020년 10월 9일(금) ~ 10월 11일(일)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 사 기 관

케이스탯리서치

표 본 추 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리서치 K-패널

유 효 표 본

총 1,034명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05\%p$

가중치 부여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0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케이스탯은 조사·통계·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매월 2회 “Kstat Report”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Kstat Report 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 Kstat Report 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 Kstat Report 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 Kstat Report 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 Kstat Report 는 매월 2,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 Kstat Report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Kstat Report 16호는 “2020년 11월 12일”에 발행됩니다.